

## 교회 대면 예배 중단 조치에도 20인 예배 가능?

광주 곳곳 교회발 코로나 집단감염, 이상한 방역 행정에 '예고된 사태'  
자영업자들 "언제까지 시민만 참아야 하느냐 종교시설도 단속 해달라"

광주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회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은 광주시의 느슨한 방역조치로 인한 '예고된 인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2·6면〉

광주시는 최근 교회 관련 역대급 확진자가 쏟아짐에 따라 모든 교회에 대한 대면예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까지 발동했지만, 일부 교회에선 각종 짐수를 동원해 대면예배를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역 몇몇 교회에서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 방송제작을 위한 (기술)인력에 한해 20인 미만까지 모일 수 있도록 한 정부 방역 지침을 악용해 20인 미만이 사실상 대면예배를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방역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

휴일인 지난 31일 광주지역 일부 교회를 확인한 결과, 20인 미만 신도가 모여 대면예배를 보는 상황들이 목격됐다. 대면예배 현장단속을 나온 광주시와 자치구 공무원도 이들의 예배활동을 제하지 않았다.

이날 4부로 진행된 때 예배마다 20명 이내 인원이 참석한 광주의 한 교회 관계자는 "점검 나온 공무원들이 20명 이내 예배는 가능하다고 해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종교시설에 대한 비대면 예배 조치는 기존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를 다시 진행한 것"이라며 "예전에도 비대면 예배시 20인 미만 조치를 진행했고, 각 교회에도 이전과 같은 방역조치를 전달했다"고 답변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을 앞서 지난 29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최근 광주에서 교회 관련 확진자가 200명 넘게 발생했고, 교회 관련 확진자 중에는 병원과 유치원, 학교, 공공기관, 요양보호사,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들이 광범위하게 포함돼 n차

감염이 확산하고 있다"면서 "추가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30일부터 2월 10일까지 광주 시내 모든 교회에 대해 대면예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교회에선 휴일을 맞아 온라인 예배 준비 등을 핑계로 20인 미만이 모인 뒤 목사 설교를 듣는 등 사실상 대면예배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대면예배 금지시 온라인 예배 방송 제작을 위해선 20명 이내까지 모일 수 있다는 정부의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사실상 악용한 것이다. 정부는 2.5단계 발동시 대면예배를 금지하는 대신 비대면 온라인 예배 준비를 위한 영상제작과 송출 등을 위한 인력을 최대 20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만 20인까지 함께 모여 예배 등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 셈이다.

소규모 교회발 확산 사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 시장의 행정명령(대면예배 금지) 조치가 효과를 낼 수 있을 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광주에선 1년 내내 교회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2월 4일 광주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종교 시설 관련 확진자는 광주에서만 이날 오후 6시 기준 지역 내 누적 확진자(1798명)의 34%인 611명에 이른다.

광주에서 최대 확진사례만 봐도 IM선교회 산하 광주 TCS 등이 163명으로 가장 많고, 사랑 제일 교회 관련 118명, 광주 안디옥 교회와 꿈이 있는 교회 관련 94명 등이다. 또 광주 정사교회 관련 75명, 경북 상주 BJT열방센터 관련 67명, 일곡중앙 교회 30명 등 교회 관련 확진자가 줄을 잇고 있다.



지난 30일부터 오는 10일까지 광주지역 모든 교회의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휴일인 31일, 광주 동구의 한 교회에서 교인 몇몇이 교회에 모여 예배를 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잠잠 할만 하면 터져나오는 교회발 집단감염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는 교회를 넘어 효과가 떨어지는 엉성한 방역행정을 이어가는 광주시로 향하고 있다.

자영업자인 김인진(38)씨는 "대면 종교시설에서 감염자가 나오는 데, 언제까지 우리(시민)만 참고 견뎌야 하느냐"면서 "제발 종교시설에 대한 관리 단속 좀 해 달라. 이제는 광주시의 어정쩡한 행정에 화가 치민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이재명, "호남 민심이 수도권에 영향 미쳐"

5·18 묘지 참배·유가족 면담  
광주에서 조용한 '1박 2일'

여당의 유력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영남의 정치적 지향, 호남의 정치적 의사 결정이 수도권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29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AI(인공지능)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사업 결성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호남 표심의 중요성을 이같이 강조했다. 〈관련기사 3면〉

그러면서 그는 "민중개혁 진영에선 광주 또는 호남이 엄청난 정치적 결정권을 가진 게 역사적인 사실이고 지금도 그것이 현실이다"고 덧붙였다. 호남에서 지지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는 "성남

시장과 경기도지사로서 주어진 일, 맡겨진 일에서 약간의 성과에 격려와 기대가 반영된 게 아닌가 한다"며 "국민들이 일을 맡겨놓은 대리인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일꾼의 역할은 주인이 정하는 것이고 평가도 일꾼이 하는 게 아니라 맡긴 주권자가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균형 발전 문제에는 "행정수도 이전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며 "우리 사회가 다극화하고 지역 발전에 관심과 역량이 투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전날 오후 광주를 찾아 비공개로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5·18 유가족과 면담하는 등 조용한 일정으로 1박2일의 행보를 이어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설 연휴·차레도 5인 이상 못 모인다

정부, 거리두기 2단계 2주 연장  
1주일 후 조정 가능

정부가 가장 강력한 방역 조치를 평가받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설 연휴(2월 11~14일)가 끝나는 14일까지 유지한다고 뜻을 밝혔다. 정부는 또한 현재 적용 중인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도 14일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설은 가족 간 모임, 합동

차레, 합동 성묘 등이 불가능한 초유의 명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명절 대목을 기다려온 전통시장, 식당, 중소형 마트 등의 타격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코로나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31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방역 지침을 확정했다.

다만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및 시설 집합금지·운영제한의 경우 향후 1주일간 환자 발생 추이, 감염 양상 등을 지켜보면서 다시 논의하기로 뜻을 모

았다. 정부는 그러나 가장 강력한 조치로 평가받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향후 1주일간의 유행 양상과 무관하게 변동 없이 전국에 걸쳐 2주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설 연휴까지 전국에 2주간 연장하여 개인 간 모임·접촉에 의한 감염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한다"며 "이는 설 연휴 기간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며, 직계 가족도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광주 이번엔 성인오락실서 무더기 확진 ▶6면
- '실버복지 1번지' 장성...치매 격정은 그만 ▶11면
- 양현종 ML 도전... KIA, 에이스 찾기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 기업고객님을 위한 아모레퍼시픽 설 선물세트

AMORE PACIFIC CORPORATION

•3만원 이상



미장센 퍼펙트 에디션  
39,900원  
(2+1)



러 자양윤모 탈모증상케어 세트(자성&건성)  
39,900원  
(3+1)



러 동백&박하 에디션  
34,900원  
(3+1)

•3만원 이하



도담 16호  
16,900원  
(10+1)



도담 21호  
21,900원  
(카드 30%할인)



도담 36호  
36,900원  
(카드30%할인, 10+1)



정성가득 기프트  
55,900원  
(3+1)



희망가득 기프트  
75,900원  
(3+1)



로즈 에디션 1+1세트  
28,900원



라벤더 에디션 1+1세트  
28,900원

해당 프로모션 적용기간 2/1 ~ 12 일 까지 아모레퍼시픽 데일리뷰티 광주영업팀 : 062-231-1868(09:00~18:00)

\*본 카탈로그의 이미지는 연출컷으로 실제 이미지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매장별 취급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구매 전 매장 담당에게 문의해주세요.